

## 간호연구를 위한 근거이론적 접근법

### 이 경 순\*

#### I. 서 론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과학 만능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의 기초는 점차적으로 형성된다. 처음에는 거의 알지 못하다가 차츰 무엇이 변인이고, 변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다음에 그 변인들을 관련시키고, 예측하고 종국적으로는 통제를 시도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호학이 과학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적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연구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간호학자들은 실제로 경험적 세계에서 변인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변인간의 관계를 밝히고, 예측하고 통제 내지는 처방하는 즉, 증명을 위한 연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간호연구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양적인 연구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질적연구방법도 역시 과학적인 연구방법이다. 이 두 연구방법은 동전의 이면과 같아서 사실상 어느 방법이 더 우위이고, 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어느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도 할 수 없을만큼 양자가 공히 중요하며 또한 상호보완적인 방법이고 더구나 한가지 방법만을 완전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문적 간호의 영역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및 의학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연구는 단지 관찰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환자관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condition을 완전하게 조사하도록 기대된다. 또한 간호는 대부분이 경험적인 사회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문인은 연구 설계를 기초과학 실험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폭넓은 범위의 변인을 연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까지 서양의 과학적 방법이 지식에 접근하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유일하게 타당성 있고 새로

운 방법이라고 관망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지식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지식이라는 과거의 관점은 명확하게 너무 협소하고 축소적이라고 도전되어지고 있다.

다양한 접근과 실제 진리에 대한 개념화를 통하여 지식을 발견하는 비서양적 철학방식이 서양과학자들에게 의하여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를 통하여 분석해낸 숫자만이 믿을 수 있고 과학적이라는 개념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새로운 운동이 최근에 간호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이 곧 질적 연구 방법론이다.

여기에서 질적인 연구방법론의 한가지인 근거이론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간호연구에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질적연구는 현상학, 실존주의, 상징적 상호작용 및 민족과학 접근법을 포함한다.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에 기저를 두고 사회학에서 우세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란 인간생활과 사회경험 양자의 철학이자 인간생활을 연구하는 독특한 접근이며, 상징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방법론 연구는 Glaser와 Strauss에 의해 "The Discovery of the Grounded Theory"에서 발달되었다. 1967년 당시에 Glaser와 Strauss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캘리포니아대학교에 간호과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간호원과 함께 작업하였다.

근거이론은 저자가 사회학자들이라서 그들의 전문용어(사회학)로 책을 썼기 때문에 모든 용어가 난해했고 직선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에 익숙한 간호과학자들은 낯선 용어로 쓰여진(사회학 용어) 이 낯선 방법(근거이론)을 결국은 비과학적이고 불전진하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초에 간호문제를 확인, 추적, 적용

\* 삼육대학 간호학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하는 진지한 간호학자들에게 이 방법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Stern 등이 표준영어로 번역하였다.

“근거이론”이란 실제로 근거한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질적 자료로부터 그들의 관계에 관한 명제와 범주를 개발시키기 위한 가장 고도로 발달되고 명백히 성문화된 방법으로써 단계가 사회 연구방법과 밀접하게 통합되는 이론발달이다. 근거이론가들은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므로 자료를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 1. 기본 가정(규칙)

Glaser와 Strauss의 발견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인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달시키는 것은 일련의 기본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1) 어떤 이론이나 분석적 설명의 목표는 그것이 “grab”를 갖는다는 것이다. “grab”은 어떤 이론이 흥미있고 유용하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구하에서 사회현상에 의해 설명되고, 예측하고, 수정되기에 적합하고 관계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료는 예상되는 이론에 맞추기 위해 선택되거나 강요되지 않으며, 자료는 존재하고 있는 이론들로부터 얻어진 몇가지 가설들을 검증하는 대신에 풍부하고 밀도가 높고 복합적이며, 설명적이거나 분석적인 윤곽을 개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2) 자료수집과 분석이 분리된 연속적 단계인 일직선상의 방법으로 간주되는 증명하는 연구와는 달리 근거이론적 접근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계속해 나간다. 자료에서 나타난 개념과 명제는 다음의 자료수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3) 근거이론 방법은 어떤 범위를 초월한다. 어떠한 분야에서 발달된 실체이론은 항상 특정한 setting을 초월할 가능성과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에 까지 확대되어질 가능성을 가진다. 근거이론 방법은 학문적으로 학문을 초월하고 사회학에서 만큼이나 간호학에도 유용하다. Glaser는 분석자의 능력만이 그러한 기능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였다.

(4) 질적자료를 특징짓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근거이론 접근은 모든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패턴을 발견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패턴을 핵심변인 또는 기초사회적과정(BSPs)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연구하에서 상호작용을 특징짓는 대부분의 변인을 설명한다. Hutchinson은 NICU 3곳에서 몇달을 지낸뒤에 간호원들은 기형, 죽음, 심지어는 신생아의 몇가지 치료와 관련된 공포감을 다루는데 야기되는 사회적·심리적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가 자신의 이론에서 설명한 BSPs, 또는 핵심변인은 ‘의미를 창조함’(Creating meaning)으로 불렸다. 그것은 NICU에서 주어진 상황과 문제하에서 간호원들이 어떻게 의미를 창출하고 자신들의 일에서 만족을 얻는가를 설명한다. 간호원들이 자신의 일세계에 대해 몇가지의 미를 만드는데 실패했을때, 그들은 기력이 소모되고 우울해 지며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5) 근거이론을 창출하는때는 시간이 걸리고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료에 관하여 사고를 발달시키는때는 시간이 걸리며, 분석가는 그것이 필요로 하는 창조성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에 보조를 맞추는데 민감해야 한다.

## Ⅲ. 근거이론 발달의 7단계

### 1. 연구문제

연구문제가 처음에는 ‘특정 상황이나 어떤 조건하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기초적인 사회심리학적 과정들은 무엇인가?’이고 이렇게 초기의 질문은 마지막 연구보고시에 grounded한 것으로 대체된다. 이론을 증명하는 대부분의 연역적 연구와는 달리 근거이론은 연구문제에 크게 초점을 두지않고 시작한다.

근거이론의 주요요건은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변인 혹은 BSPs를 발견하는 것이다. 분석가는 구체적인 연구가능한 문제가 발견되기 전에 그 분야를 관련된 차원으로 상세히 나타내는데(mapping-out)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근거이론 문제와 분석시 핵심변인이 되는 설명을 분명히 하는데 최소한 50시간 이상의 작업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근거이론가의 초기 질문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전략과 결과로서 작용하는가?’ ‘여기에서 주된 줄거리는 무엇인가?’로 시작된다.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생활현장에 직접 참여 또는 관찰하므로 살아있는 연구를 하게 된다.

### 2. 문헌고찰

효과적인 전략법은 연구할 분야에 관한 이론과 사실의 문헌을 처음에는 무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범주의 출현이 서로 다른 분야에 보다 적합하게 될 개념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범주의 분석적 핵심이 설정된 후에 문헌의 유사성과 수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거이론을 발견할 때 문헌고찰 이전에 그 분야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분석계획이 설

정되면 근거이론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현존하는 연구에 어떻게 적합한지 또 그것이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읽는다. 정말 위험한 것은 문헌이 연구자에게 응답자들이 제공한 정보보다 더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3. 표집

양적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random sampling 대신에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이라고 불리는 의미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통계적인 표집이 변인들의 가치를 동일하게 분배하는데 이상적인 표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표집은 변인들에게 양적으로 동일하게 분배하기 보다는 출처는 무시하고 정보에 대한 이론적 자료를 표집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이다. 근거이론에서는 정보제공자나 혹은 정보를 제공할 만한 것들이나 이론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람이면 무엇이든 찾는다. 이론적 표집이란 수집한 자료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발견되지 않을 때를 말하고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의 표집은 필요치 않다. 이를 또한 범주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범주의 포화상태란 주요하게 되풀이 되는 패턴이나 핵심변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4. 코딩

자료수집과 코딩과 분석이 동시에 진행된다. 코딩이란 일련의 경험적인 indicator의 기초적인 양상을 개념화하는 과정이다. 수집된 자료를 읽으면서 '이 자료의 indicator가 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 자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자료는 무엇에 대한 자료인가?' 등에 대한 것으로 Glaser는 이것을 일컬어 개념정의라고 하기보다는 대신에 개념상술(Specification)이라고 하였다. 코드의 종류로는 Substantive Code, Selective Code, Theoretical Code의 세 종류가 있다.

Substantive Code는 연구자가 자료에서 발견하는 말들이다. 이것은 자주 참여자가 사용한 그대로의 용어들이다. 이것들은 차원, 속성, 상황, 전략, 결과들을 서술하는데 사용된 용어들이다. 이것을 list로 만들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Code가 반복되면 Selective Coding으로 넘어간다.

Selective Coding은 분석자가 list에 있는 코드와 코드집단을 서로에게 관련된 범주로 만드는데 유사성과 상이성이 있는가를 알도록 요구한다. Selective Coding 단계는 Open Code들의 더 정확한 list를 더욱 추상적인 일련의 함축된 Code들로 바꾸게 하기 위해 필요하

다.

Theoretical Coding은 실제 범주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연관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한 관계에 대한 명제들을 적극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이 단계는 성취된다. Theoretical Coding 가운데 하나가 핵심변인이 될 수도 있다.

### 5. 메모하기

자료, 코드, 범주와 관계들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핵심설명 Scheme으로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분석적으로 메모하는 것은 근거이론 방법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분석가의 목표는 마지막으로 통합된 Scheme을 자세히 적는데 기초가 되는 자신의 자료에 대한 이론적 idea를 개발시키는 것이다. 어떤 memo는 문장이나 문단이나 몇 페이지일 수도 있다. 메모는 자료에 대한 분석가의 사고를 개념적 수준으로 옮기게 하고, 각 범주의 특성을 요약해서 조작적 정의를 세우기 시작할 수 있게하고, 범주와 속성간의 관계에 관하여 명제들을 요약하고, 다른 범주들과 범주를 통합하기 시작하고, 분석가(연구자)의 분석을 다른 이론들과 연관시키므로 이론발달을 돕는다.

Glaser는 메모에 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메모는 자료로부터 분리시키되 자료에 유용한 해결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뒤를 참조하라.

둘째, 생각이 떠오를 때는 항상 메모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나 코딩을 중단하라.

셋째, 당신의 생각이 수정된 것처럼 원래있는 메모들을 수정하라.

넷째, 당신의 Substantive Code의 list를 만들고, list에 있는 하나 하나에 메모하라.

다섯째, 만일 두가지 다른 코드들에 대한 많은 메모들이 유사하다면 두 코드를 하나로 합병하라.

여섯째, 메모를 개념적으로 기록해 두라.

일곱째, 한 idea를 한번에 자세히 쓰고 한 메모당 한 생각만 써라.

여덟째, 메모를 융통성있게 기록해 두라. 그러면 다양한 결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각 메모를 그것이 묘사하는 코드나 코드들로 이름붙여라.

근거이론은 관계들의 일직선상의 Set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분자 Set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들의 마지막 분석을 쓸때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상호관계들을 도해하려고 한다.

### 6. 가장 중요한 분석안을 발견하는 것

최종적으로 통합된 안(Scheme)에 도달하는 것은 지속적인 비교방법과 묘사된 기술을 통하여 하나의 핵심 범주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안은 그 분야의 대부분의 행동패턴을 설명하고 다른 하위 범주와 명제들의 밀도 높은 정렬을 통합하고 상호관련시킨다.

분석시 핵심범주를 깨닫는데 대한 Glaser가 제안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중심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다른 코드와 범주와 관계를 그것에 쉽게 관련시킬 수 있다.

둘째, 그것은 자료에서 자주 되풀이 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널리 퍼져 있어야 한다.

셋째, 그것은 연구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넷째, 많은 서술적 변량을 통합하므로써 밀도 높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섯째, 그것은 이론적 코드의 하나일 수도 있다.

#### 7. 윤곽을 그리기 위해 메모들을 분류하는 것

메모를 분류하는 것은 그 자료를 다시 하나의 조리가 선 이야기로 함께 놓는 것이다. 그것은 중요한 idea들을 하나의 Scheme으로 통합시킨다. 분석가는 코드들을 가지고 모든 메모들을 분류할때 메모 fund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들, 배경들, 전략들, 결과들, 상호관계들을 분류하고, 분석자료 묶음에서 나온 해석적인 예들을 연결시키고 메모들을 관련된 문헌에 연결 통합시킨다.

메모를 분류하므로써 최종 연구보고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인 윤곽을 만들 수 있다. 메모한 것들이 분류되면 근거이론가는 보다 일반적인 명제에서 부터 구체적인 해설에 걸쳐 그것을 그럴듯하게 하는 인용구와 삽화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쓴다. 그 이론은 연구의 결과로 구성된다. 그것이 자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간호교육, 행정, 특히 간호실무의 실제적인 면에 적의성을 갖는다.

#### IV. 이론의 요소

계속 비교분석에 의해 발달된 요소에는 첫째, 개념적 요소가 있다. 범주와 속성간의 구별은 이론의 두 요소간의 계층적인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범주는 이론의 개념적 요소이고, 속성은 범주의 개념적 관점이나 요소이다. 두번째 요소는 범주와 속성 가운데 있는 가설과 일반화된 관계이다. 이때 발

달시켜야 할 개념은 분석적이고 예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체(entity)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체의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내도록 충분한 일반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민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적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해를 하는 '의미있는 그림'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개념이 분석적이고 예민하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그 분야에 있어서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특히 그것이 실제적인 분야인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은 독자로 하여금 그 분야의 발견된 이론에 도움을 주게 된다. Group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는 범주를 산출해 낼 뿐만아니라, 범주들간의 일반화된 관계를 더 빠르게 산출해 낸다. 처음에는 이러한 가설이 속성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제시하는 상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범주와 속성이 나타나고 추상성이 발달되면 관련이 되어지고 이러한 축적된 상호관계가 하나의 통합된 중심되는 이론적 기틀을 형성한다.

#### V. 실체이론과 공식이론

비교분석은 이론의 기본적인 두가지 즉 실체이론과 공식이론을 산출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실체이론은 사회학 연구분야의 실질적이거나 경험적인 것을 위해 발달된 것을 의미하는데 즉 환자간호, 종족관계, 전문직 교육, 청소년 범죄, 연구조직등에 관한 것이다. 공식이론은 사회연구 영역에서 공식적인 것이나 개념적인 것을 위해 발달된 것을 의미하는데 즉 오명, 이 탈행위, 공식적 조직, 사회화, 권위, 권력, 보상체계 또는 사회운동에 관한 것이다. 실체이론이나 공식이론은 둘다 middle-range 이론에 속한다. 실체이론과 공식이론은 일반화의 정도에서 구별되며 정도의 의미에서만 다르며, 둘 다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 VI. 간호연구의 근거이론적 접근

Dickoff와 James 및 Wiedenbach는 간호에서 개발되어야 할 이론을 4가지 수준으로 나눴는데 이 4가지 수준은 어느것이 어느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히 필요한 이론이라고 하였다. 제 1수준 이론은 명명 또는 요인분리 이론인데 변인을 찾는 데 적합하다. 또 제 2수준 이론은 요인관계 혹은 상황묘사 이론인데 이수준은 두개이상의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호학에서 미진한 연구분야가 제 1, 2수준의 이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근거이론

은 귀납적 이론구축으로서 제1, 2수준의 이론발달에 아주 적합하다. 근거이론은 실제에서 이론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므로 간호전문직과 같은 경험적 사회세계에 존재하는 학문에 특히 필요되는 접근이다. 이것은 또한 이해가 쉽고 실제에서 근거하였으므로 유용성이 크다는 것 또한 보증할만한 특성이라 하겠다. 근거이론 자체는 어떤 현상에 관한 지식기초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주요변인들을 알 수 없고 완전히 정의하지도 못하며 서로의 관계들이 대개 명확하지 못할때 적합하므로 이 방법은 특히 간호학에 적용가능하다. 간호연구의 주요목표는 실무증진에 있으므로 근거 이론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근거자료에서 이론을 발달시켜야 할 간호학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V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근거이론은 간호학과 같은 아주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 환경, 건강 및 간호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적합하다. 더우기 학문자체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본질 그 자체를 탐구하는 제 1 및 제 2수준의 이론발달을 위해서는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이론적 접근이 경험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호영역의 본질을 실제 현장에서 참여관찰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손쉽게 시도할 수 있고, 또한 이제까지의 간호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반하여 근거이론적 접근법에 의해서 밝혀지는 결과는 유용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간호전문인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자극이 되어 누구나 두려움없이 연구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 참 고 문 헌

Atwood, J.R., Strategy for Theory Development: Grounded Theory, *Boston University Colloquium Proceedings*, 1984, 37~55.

Chenitz W.C. and Swanson J.M.,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6.

Dickoff J. and James P., A Theory of Theories: A Position Paper, *A.J.N.*, 1968, 17(3), 197~203.

Glaser B.G. and Strauss A. L.,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1967.

Glaser B.G. and Strauss A.L., *Discovery of Substantive Theory: A Basic Strategy Underlying Qualitative Research in Qualitative Methodology* (ed) William J. Filstead,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mpany, 1970.

Schwartz H. and Jacobs J., *Qualitative Sociology*, London: The Free Press, 1979.

Simms L.M.,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R.*, 1980, 356~359.

Stern P.N.,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in Nursing Research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ed) Madeleine M. Leininger, Grune & Stratton Inc., 1985.

Swanson, J.M., Chenitz, Why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N.O.*, 1982, April, 241~245.

Wilson, H.K., *Research in Nurs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5.